

페스티벌·국제음악제·독립영화제...한달간 '셍템버 페스트'

# 즐거라, 문화난장 느껴라, 9월 목포



목포 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목포 일대에서 펼쳐졌다. 지난 20일 하단에 있는 건물 옥상에 '옥상달빛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2~3일 '마차타고 고래고래' 시사회

9~10일 디제이 클럽파티·목포국제음악제

23~24일 유인촌 등 출연 뮤지컬 '홀스토펜트'

30~10월 1일 아트컬 '바람칼' 공연

예향 목포에서 페스티벌·국제음악제·독립영화제 등 문화예술 행사가 이어지면서 폭염에 지친 지역민의 심신을 달래주는 단비가 되고 있다.

28일 목포시에 따르면 은금동에 있는 폐공장을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진행하는 문화축제인 '셍템버 페스트'가 9월 한 달 동안 개최된다.

특히 페스티벌이 열리는 (구)조선내화 폐공장은 목포시의 아름다운 유달산을 등지고 넓은 바다를 눈앞에 두고 있는 곳으로, 폐공장 외부와 골목에 벽화와 형상물을 만들어 폐공장 이미지를 탈피한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달 2~3일에는 목포 출신의 고교 동창생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마차 타고 고래고래'의 프리미엄 VIP 시사회가 진행된다. 이어 9일~10일에는 배우 조한선과 국내 탑 유명 DJ들을 초청해 시민들과 함께 디제이 클럽파티가 펼쳐진다.

23일~24일에는 촉망받는 경주마였으나 지금은 늙고 병든 얼룩말의 입을 빌려 삶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뮤지컬 '홀스토펜트'의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이 공연에는 유인촌과 공연계 유명 배우들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9월 30일~10월 1일에는 난타, 역동적인 비보이, 무예 등으로 우리나라의 얼을 웅장하게 표현해 배우들의 예술성과 흥행성을 볼 수 있는 강홍진 감독의 아트컬 '바람 칼'이 공연된다.

또 민간이 주도하는 제1회 목포국제음악제(뮤직페스티벌)가 내달 9~10일 이틀간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판페라 일디노와 슬로바 신포니에따 등이 이들에 걸쳐 차이코프스키와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등을 연주한다.

이와 함께 드라마틱한 연기력과 다채로운 재즈선율을 지닌 길하나 공연이 브라보재즈밴드와 함께 펼쳐진다.

김영인 총감독은 "올해 클래식 이어 내년에는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개최해 예향 목포의 공연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3회 목포 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가 '우리는 사람입니까?'를 슬로건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목포 일대에서 펼쳐졌다.

지난 18일 대상동 성당에서 강석필 감독의 '소년 달리아'가 상영됐고 19일에는 하당 장미꽃길에 있는 공연카페에서 영화 '다시 올래'를 감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20일에는 하당 슈니발커피숍 옥상에 영화를 상영해 옥상달빛 영화관으로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번 영화제에서는 총 17편의 영화가 상영됐으며 오는 31일에는 오거리 문화센터에서 정성우 감독이 만든 '불안한 손님'과 조승연 감독의 '협한 교육'이 상영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 목포영어도서관 개관 6개월... 교육문화공간 자리매김

### 2만9800명 이용 인기

목포시 석현동에 들어선 호남권 최초 영어도서관이 개관 6개월을 넘어서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8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영어도서관은 지난 3월 개관 이후 총 2만9800명(7월 말 기준)이 이용했다.

목포영어도서관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놀이를 통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덕분이라는 게 도서관측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영어도서관은 '견학 프로그램'을 6차례 운영했고, '언니·오빠와 함께 하는 독서놀이'도 9차례나 개최했다.

또 고정 영어프로그램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나라, 피닉스와 함께하는 읽기, 단어와 놀아요, 독서 동아리 등 수준별 8개 과목 8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들 프로그램은 전부 무료로 운영돼 유치원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는 이달 내로 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유치원생·초등학생 견학 프로그램 확대,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도서 확충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목포영어도서관 영어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치원생들이 놀이를 통해 영어를 배우고 있다.

목포시는 그동안 영어도서관을 '스마트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영어 원서 1만여 권을 비롯해 300여종의 DVD(E-book) 등 풍부하고 다양한 영어 콘텐츠를 구축해 왔다. 부지 2476㎡에 연면적 953㎡(지상 2층) 규모인 도서관 1층은 다양한 영어원서가 비치된 종합자료실을 비롯한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키즈 룸, 답소를 나눌 수 있는 북카페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 100% 영어 활용공간인 2층에는 멀티 룸, 스타디 룸, 정보화실, 세미나 룸 등이 구비돼 영어 공부에 물론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문화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공

간으로 꾸며져 있다. 특히 영어도서관은 어린이자료실과 모자열람실, 일반자료실, 일반열람실, 디지털자료실, 가족영상실 등을 갖추고 있는 석현동 목포 어린이도서관과 연계한 지적이점으로 덕분에 어린이의 책 읽는 습관 형성에도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차연희 목포시 교육문화 사업단장은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과 어린이들의 참여를 유도해 독서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식 나눔의 장으로 활약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도 야구장 생긴다... 39억 투입 연말 착공

목포시 사회인 야구동호회 회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목포 야구장이 올 연말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 야구장은 대양동 목포국제체육센터 옆 2만4629㎡ 부지에 좌·우측 99m, 중간 122m 크기의 정규 야구장 규격으로 건립된다. 관람석은 200석 규모로 조성되며 운영실과 선수대 기실, 화장실, 주차장 등 각종 부대시설도 들어선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39억원(국비4억, 시비35억)이다.

목포시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고시, 전남도 실시계획인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달 중 도시계획사업(야구장)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오는 10월부터 사업부지 매입과 보상에 들어간다.

특히 야구장이 들어서면 대양동 인근에는 다양한 시설과 숙박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체육센터도 있어 향후 각종 야구대회 개최와 함께 사회인 야구팀들의 전지훈련 장소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사회인 야구시설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 지방의 야구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해 야구장 조성에 나서게 됐다"면서 "앞으로 야구장이 완공되면 사회인 야구 시설 부족이 해소되는 물론 향후 각종 야구대회, 야구팀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3일 노을축제... 노래자랑·공연 등 행사 풍성

### '만원의 행복' 먹거리 장터도

목포지역 동 단위 축제 중 가장 규모가 큰 '노을축제'가 오는 3일 북항동 노을공원에서 펼쳐진다.

목포대교를 배경으로 지는 노을이 절경인 노을공원은 아파트가 밀집된 북항동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원도심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동 자생조직이 공동체를 이룰 추진하는 행사로 '지역형 동네자치 활성화'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28일 노을축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축제'가 되도록 주민참여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해 주민결속력을 강화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노을 노래자랑이다. 40개팀이 참가해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이 본선에서 실력을 겨룬다. 또 미술, 청소년 보컬, 벨리 댄스, 노을

실버밴드, 다문화 공연 등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부대행사로는 축제 컨셉인 '만원의 행복'에 맞게 싱싱한 회를 만원에 제공하는 먹거리 장터와 어른들의 축제가 아닌 유·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게임장터도 운영된다.

최치영 축제추진위원장은 "참여와 화합이 이번 노을축제의 슬로건"이라며 "북항동의 불거리·먹을거리·즐길 거리를 제공해 북항 회 타운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 단식에 깊이 공감하는 시민 3천인 선언 참가자 이동

# 진실은 통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 특검의결, 선체조사 보장

약속을 지키라 전화하세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장훈 진상규명 분과장의 '사생결단식'이 광화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와 416가족협의회 단식을 지지하며 가만히 있지 않고 함께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담아 지금 전화하세요!~

광주지역 국회의원 연락처 및 정당 연락처

- |  |  |
|--|--|
| 김동철 의원실(광산갑) Tel. 02)784-3174~6, Tel. 062)959-7741~2 | 장병만 의원실(동남갑) Tel. 02)784-5270~2, Tel. 062)674-3600 |
| 권은희 의원실(광산을) Tel. 02)784-1813~5, Tel. 062)961-7030   | 박주선(국회부의장)(동남을) 의원실 Tel. 02)784-5288, 02)784-2784  |
| 김경진 의원실(북구갑) Tel. 02)784-2601~3, Tel. 062)261-1011   | 부의장실 Tel. 02)784-0931, 02)788-2218                 |
| 최경환 의원실(북구를) Tel. 02)784-5591~3, Tel. 062)576-8741   | 지역위사무실 Tel. 062)227-8115~7                         |
| 송기석 의원실(서구갑) Tel. 02)784-5750~2, Tel. 062)373-0413   | 국민의당 광주시당 Tel. 062)373-9801~2                      |
| 천정배 의원실(서구를) Tel. 02)784-9550~2, Tel. 062)385-2266   | 더민주 광주시당 Tel. 062)385-8400                         |

